

‘國手의 고장’ 전남서 亞 바둑축제 열린다

전남도-한국기원 ‘국수산맥 국제대회’ 조인식

내달 8일 개막 강진·영암·신안 순회... 한중일 등 참가

‘국수(國手)의 고장’ 전남도가 추진하는 아시아 바둑 축제가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는 29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기원, 강진군, 영암군, 신안군과 ‘2014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홍석현 한국기원 총재, 개최지인 강진군과 영암, 신안군 단체장, 전남 출신 국수(國手)인 김인, 조훈현, 이세돌 9단이 참석했다.

이 대회는 3대 국수를 배출, 명실상부한 바둑의 본고장인 전남의 이미지를 다지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전남도와 3개 지자체, 한국기원이 마련했다.

전남도와 한국기원은 조인식에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바둑문화 향유와 세계 스포츠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대회는 8월 8일부터 13일까지 각 지자체를 순회하며 열전에 돌입한다.

세계바둑 최강 프로기사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어린이 선수단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국제대회로 총 상금은 9억원이다.

한·중 단체바둑 대항전은 한국과 중국

에서 정상급 기사 각 5명이 3라운드 리그전을 벌인다. 국내 랭킹 1위 박정환 9단과 주최사가 와일드카드를 지목한 이세돌 9단은 본선에 직행했다.

조훈현과 이슬야 등 아시아 4개국 남녀 프로기사의 혼성 페어전, 바둑 꿈나무 잔치인 한·중 어린이 바둑 대축제 등으로 나뉘어 열린다. 어린이 바둑 대축제에는 대한바둑협회가 16개 시도지부에서 선발한 500명과 중국기원이 선발한 200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전남도는 중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남

도 문화체험과 관광 명소 탐방, 지역 특산품 쇼핑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호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을 널리 알리고, 바둑 인구 저변이 늘고 있는 중국과 대만 등과의 스포츠교류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는 29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재)한국기원과 ‘2014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최를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고길호 신안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이낙연 전남지사, 홍석현 (재)한국기원 총재, 전통평 영암군수, 김인 국수(國手). <전남도 제공>

목포대, 대불산단에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설치

265억 투입 국책사업 선정

목포대의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265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목포대는 영암 대불국가산단 산학융합 지구 7000㎡에 시험동과 연구동을 짓고

해양플랜트산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해양케이블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국제인증 시험 평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구축 총괄책임자인 심천식 교수는 29일 “해양케이블은 해상 플랫폼과 해저자원 생산시스템 간을 신경망처럼 연결하는 엄버리컬(Umbilical), 라이저(Riser), 플로우라인(Flowline) 등으로 구성돼 매우 엄격한 구조 안전성이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연구센터 구축으로 10년 후에는 관련 산업분야에서 매년 2000억원의 매출 증대와 150억원의 외화 유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해양케이블에 대한 국제인증시험은 현재 유럽과 미국의 극히 일부 기관에서만 가능한 실정이며 관련 국내 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내년까지 입법개정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5년 말까지 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

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

당초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제한됐지만 현재가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국

내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여전히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돼 왔다.

헌재는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재외선거인 역시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절차적·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강인규 나주시장

혁신도시시험 부회장에

강인규(사진) 나주시장이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전국혁신도시시험의 제7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혁신도시시험의회는 29일 대구 동구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인 회장에 김승수 전주시장을, 부회장에 강인규 나주시장과 이필용 음성군수를 각각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회장단은 이날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지역대학 인재채용률을 적용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강 부회장은 “지방대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때 지방대 출신 인재 35%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공기관 조기 이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기간 단축, 재난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문순테 칼럼

죽음이 삶을 말해준다고 했다가, 유병언의 참담한 주검의 물골(沒骨)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깊은 회오(悔悟)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

화려했던 삶과는 거리가 먼, 한갓 초개(草芥)와도 같고 비풍참우(悲風慘雨)한 죽음은, 날이 갈수록 의혹과 괴담으로 안개처럼 퍼지고 있다.

국고수에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유병언의 죽음을 발표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유병언의 죽음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자연사나 타살이나를 놓고도 논란이 많고 조작설까지 나오는가 하면, 왜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검찰과 경찰의 발표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쩌다가 이렇듯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단 말인가.

유병언의 이상한 죽음은 지금 불신의 폭탄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서울 두산인문극장에서 오는 오늘의 일본 현실을 다룬 연극 ‘배수의 고도’ 라는 연극을 공연했다.

‘물을 등진 외로운 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연극은 세월호 참사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했다.

병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종교에 의탁해보지만 세속화된 것에 회의를 느낀다. 주인공 진영을 둘러싼 사회는 모두 그녀를 기만하고 배신한다.

환자를 고쳐야할 병원도, 영혼구원에 힘써야할 종교도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안다. 피해의식을 느낀 그녀는 현실을 자각하고 생존을 위해 불신사회에 저항할 것을 결심한다.

박경리 소설이 보여준 불신은 반세기 지난 지금 오히려 몇 배로 증폭되었다. 개인도 사회도, 정부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 낯선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도 고마움에 앞서 “이 사람이 왜 이리지?”하고 의심부터 한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 말만 믿었다가 꽃 같은 목숨을 잃었다. 늙은 부모들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아 거리에 팽개쳐졌다.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 부모는 자식을,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이 같은 불신은 무엇 때문에, 왜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일까. 국정원 댓글사건이 흐지부지 끝나면서부터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

유병언 미스터리와 ‘불신시대’

작품은 국가와 자본이 통제되고 있는 일본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 약자 배려가 취약한 시스템과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관심을 끈 것은 두산인문극장이 올해의 열셋말(키워드)을 ‘불신시대’로 정했다는 것이다. 2007년에 문을 연 두산아트센터는 해마다 그 해의 열셋말을 정하고 그에 맞는 기획 연극 시리즈를 무대에 올려왔다.

우리사회의 신뢰도가 극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연극 ‘배기소’에서 자본주의를 사는 인간군상의 불신문제를 다루었고, ‘엔론’은 자본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올해의 열셋말을 ‘불신시대’로 정한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불신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배수의 고도’를 보고나서, 나는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 소설 ‘불신시대’를 다시 읽었다.

1957년 현대문학 8월호에 발표된 이 소설은 현대문신인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진영은 의사의 무성의한 치료로 아들까지 죽고 자신도 폐결핵에 걸리고 만다.

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국가 개조를 약속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고 관피아를 척결하는 한편 비호 세력들을 모두 도려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유족들이 단식투쟁으로 탈진해가고 있는데도 특별법은 자꾸 미루어지고 있다. 유병언의 정관계 로비는 손도 못 대고 50억 원어치 골짜기 행방은 짹짹 무소식이다.

불신의 원인은 불통에서 비롯된다. 불통의 원인은 열린사회보다 닫힌사회를 지향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비롯된다. 소통이 햇살이고 바람이라면 불통은 어둠이고 장벽이다.

소통이 안 되면 골짜기와 독버섯이 피어나 사회가 병들게 마련이다. 불통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회복해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국민에너지인 국력이 생긴다.

투명하고 신뢰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혹시 자신이 불신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볼 때이다. <소설가>

주요 공연프로그램

14일(목)	· 식전공연 “길놀이, 상동들노래” [15:00] · 개막식 “금혼식” [16:00] · 개막공연 [19:00] · 불꽃놀이 [21:00]
15일(금)	· 연 요리경연대회 [10:00] · 영호남교류 도립국악단 공연 [19:00]
16일(토)	· 군민노래자랑대회 [16:00] · 연극 “풀 바” 공연 [19:30]
17일(일)	· 군민합창경연대회 [16:00] · 레이저 대북 퍼포먼스 [19:30]

2014 백련과 함께 백년의 사랑

무안연꽃축제

2014 MUAN LOTUS FESTIVAL

2014. 8.14(목) ~ 8.17(일)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